
청년의 안전과 주거: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동훈 부연구위원

목 차

I. 청년의 정의와 특성

- 청년의 정의
- 청년의 특성

II. 청년의 안전 및 주거

- 청년의 사회적 고립
- 청년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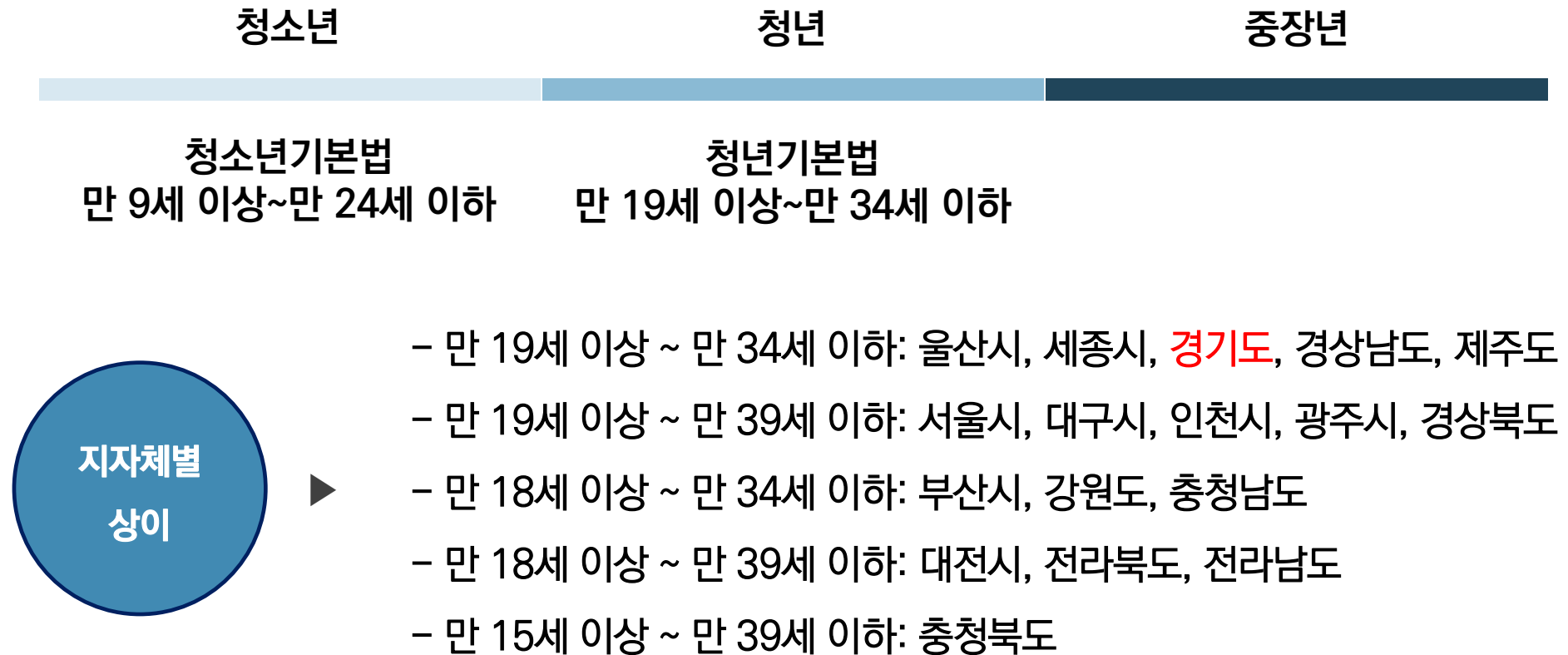
III.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

- 청년정책연구 핵심 키워드
- 안전 및 주거 관련 청년정책 추진 방향

청년의 정의와 특성

I . 청년의 정의와 특성

1. 청년의 정의



I . 청년의 정의와 특성

2. 청년의 특성

아동기

성인이행기

성인기

아동복지법
만 18세 미만

청년기본법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이행기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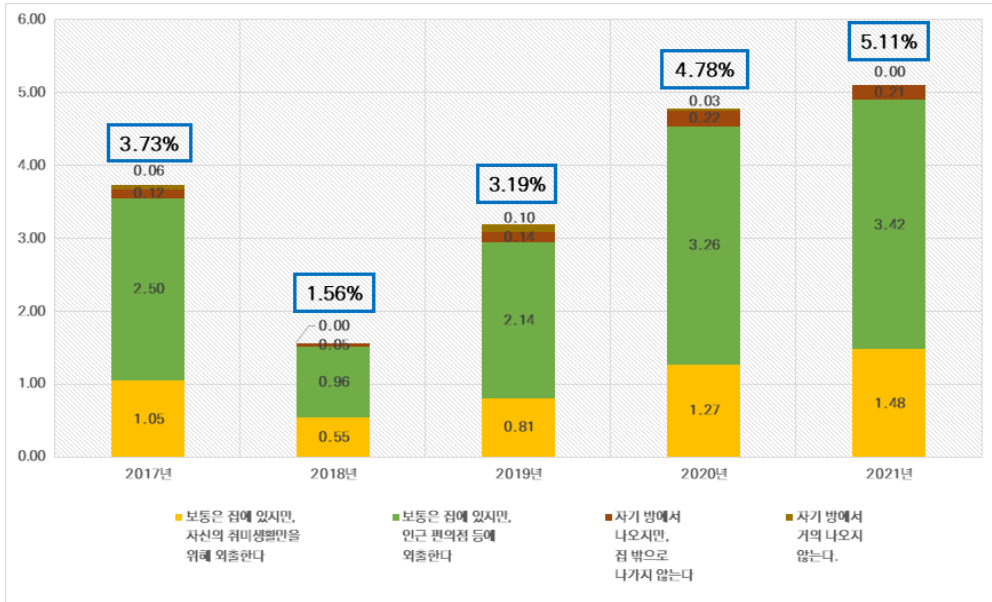
- 성인기 이행의 지연 (교육기간의 연장, 일자리 불안정, 혼인 및 출산 등에 대한 가치관 변화)
- 아동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 사이의 새로운 단계(emerging adulthood)
-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기

청년의 안전 및 주거

II. 청년의 안전 및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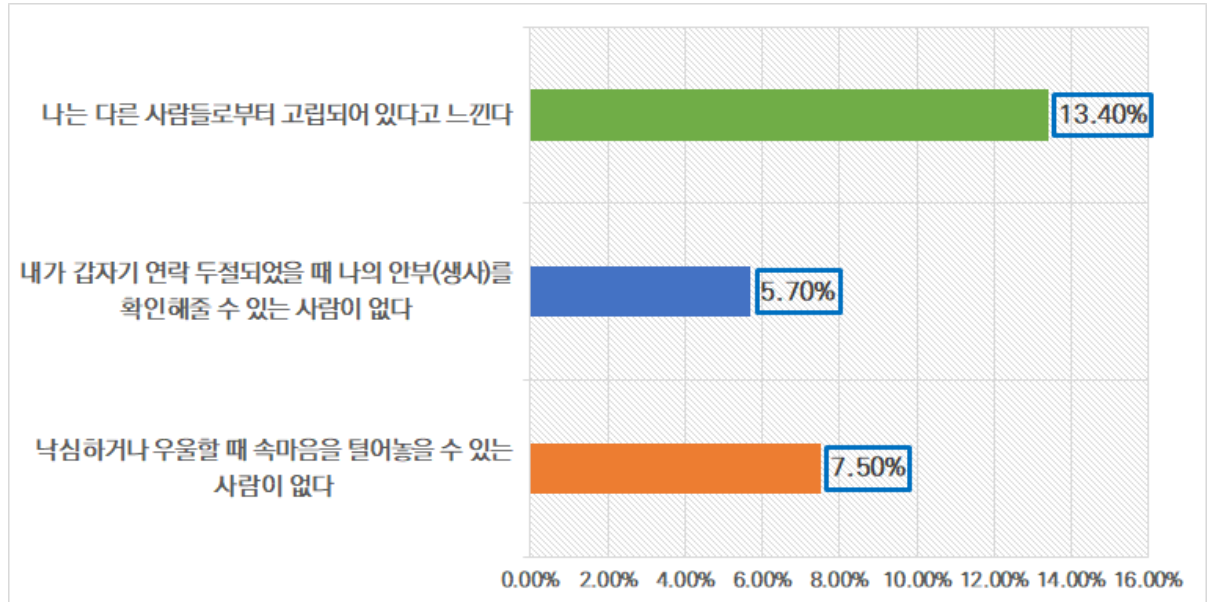
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외출 없이 고립된 청년은 증가 추세임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연차 별자료를 재가공 ('17~'20년 연령범위: 만 19세~34세(가중치 미적용). 단, 2021년은 만 18세~34세 대상 가중치 적용 결과임).

정서적으로 고립된 청년의 비율은 이를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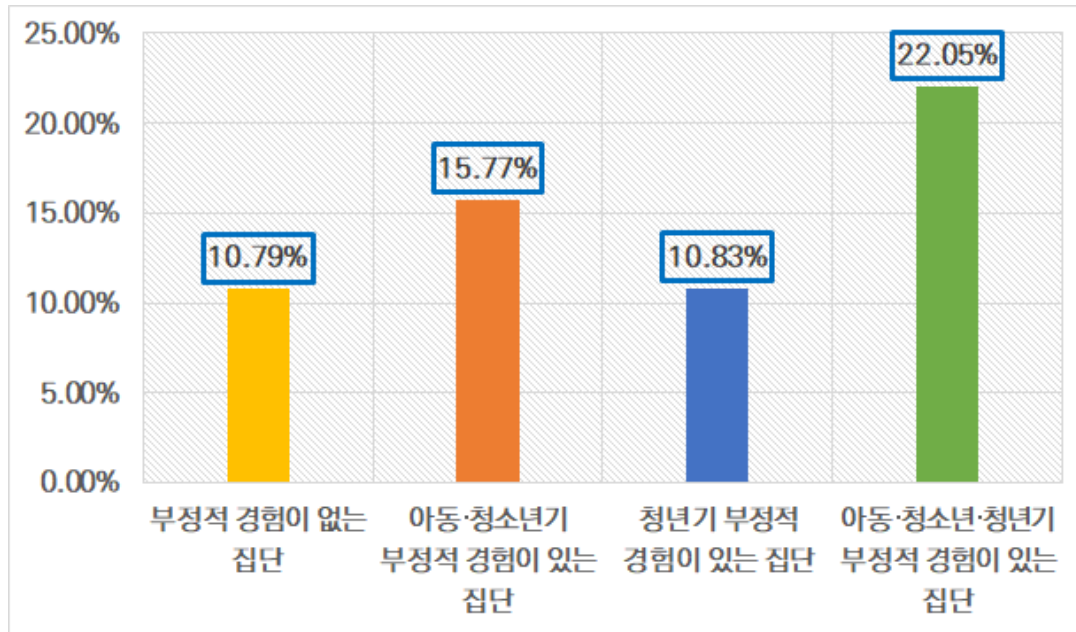
* 주: 느낀다는 감정은 빈도로 측정 되었으며,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의 합산 비율임

* 출처: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만 18세~34세 대상 가중치 적용 결과.

II. 청년의 안전

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청년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고립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점차 심각해지고 장기화될 수 있음



* 주: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차이

* 출처: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만 18세~34세 대상 가중치 적용 결과.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

- (1)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 (2)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
- (3)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청년기 부정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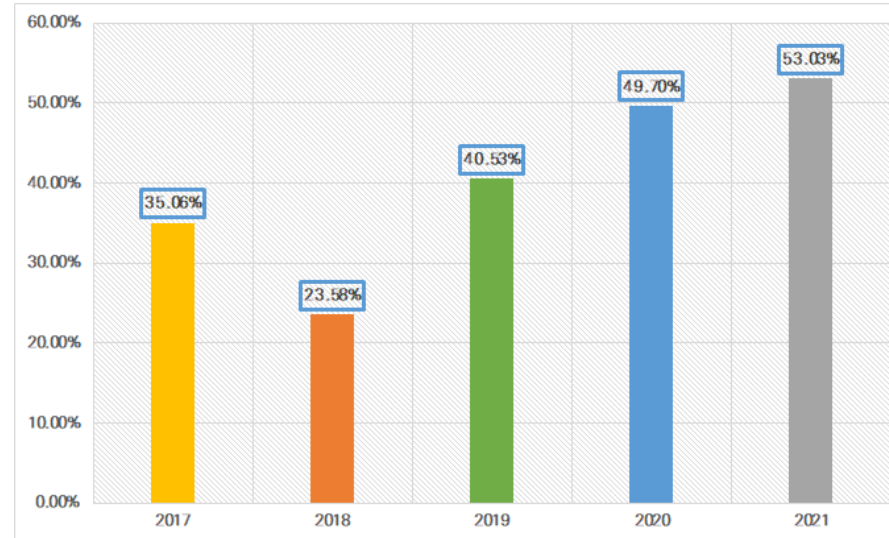
- (1)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
- (2)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을 받거나 진로변경을 강요받은 경험
- (3)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을 못했던 경험,
- (4) 내가 원했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 (5)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여부

II. 청년의 안전 및 주거

2. 청년 1인 가구

미혼 독립 청년은 증가 추세임

-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청년들 중 미혼 상태인 경우는 지난 5년간 증가하는 양상
(2017년) 35.06% → (2019년) 40.53% → (2021년) 53.03%)
- 청년 1인 가구의 증가가 반영된 결과
-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 이중 미혼 가구는 50.3% (2020 인구주택총조사)
- 1인 가구의 약 3분의1은 20~30대 청년층



* 자료: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연차별자료를 재가공 ('17~'21년)

* 주: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문항에 대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또는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고 응답한 만19~34세 청년 중 '미혼'상태인 청년의 비율(가중치 미적용 결과임)

연도별 1인가구 규모
(2000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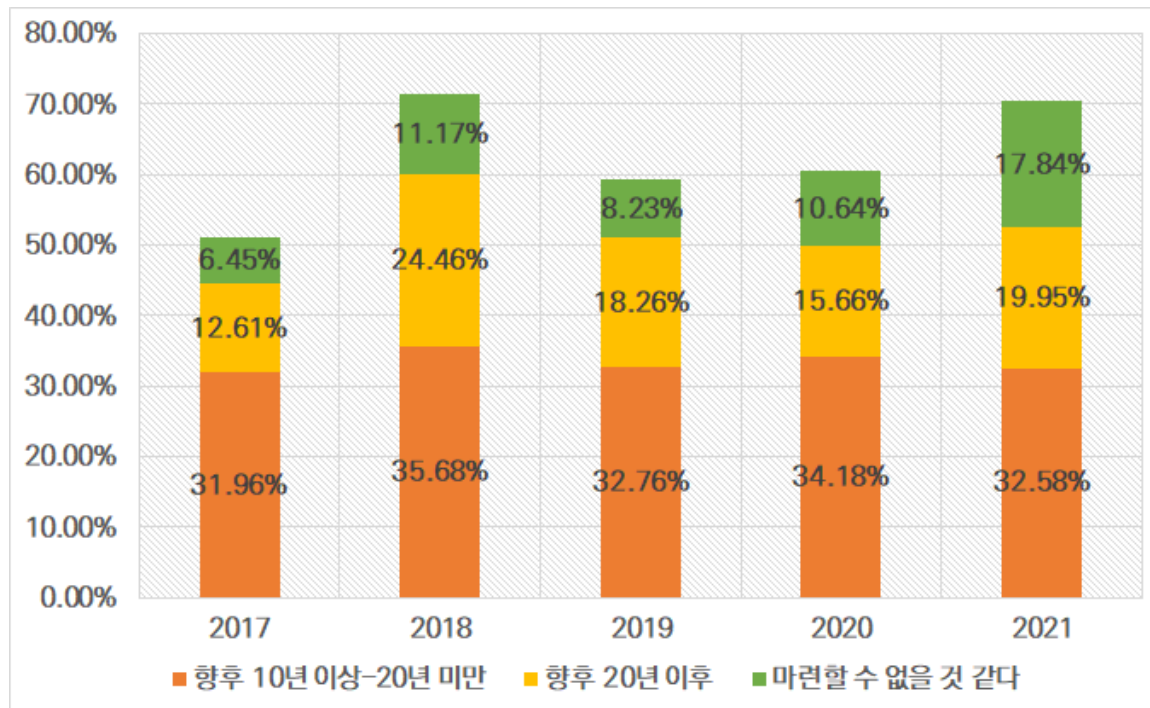
* 출처: 2020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https://www.census.go.kr/mainView.do#infographic>)

II. 청년의 안전 및 주거

2. 청년 1인 가구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는 늦춰지고 있음

- 청년들이 본인 명의의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는 최근 다소 늦춰지고 있음.
- 향후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청년층의 비율은 지난 5년간 큰 변동이 없었으나, 이보다 긴 '20년 이후' 또는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응답한 청년층의 비율은 2017년(12.61%+6.45%)에 비해 2021년(19.95%+17.84%)약 두 배로 상승하였음.
-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주택매매가격지수, 전월세가격지수의 증가로 인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자료: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연차별자료를 재가공 ('17~'21년)

* 주 :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문항에 대해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향후 20년 이후', 또는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응답한 만19~34세 청년의 비율(가중치 미적용 결과임)

II. 청년의 안전 및 주거

2. 청년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내 다양한 유형이 공존함

유형		성취형	불안형	정착형	소외형	희망형
구성비율(%)		18.3	19.5	20.1	20.2	21.9
객관지위	소득지위(1~5)	3.7	2.5	2.9	1.6	1.2
	교육지위(1~5)	4.0	4.2	1.5	2.1	3.0
	노동지위(0~1)	0.88	0.73	0.85	0.28	0.03
주관지위	소득만족도(1~5)	3.4	2.2	2.8	2.0	2.7
	주관적 계층의식(1~5)	3.6	2.5	2.9	1.6	3.5
미래지위	내년 가구재정 예측(1~5)	3.7	3.1	3.4	3.0	3.4
	계층이동 가능성(1~5)	2.5	1.8	2.2	1.7	2.5

유형별 특징

- 성취형: 안정적 일자리 정착
- 불안형: 고학력 저임금
- 정착형: 저학력 중소득
- 소외형: 다차원적 빈곤
- 희망형: 대학생 중심

선호 복지 유형

- 주거복지: 성취형 및 불안형
- 고용복지: 소외형
- 보건복지: 희망형

* 출처: 채병주, 황선재(2021). 청년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이질성과 복지 영역 선호. 보건사회연구, 41(3), 248-268.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

III.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

1. 청년정책연구 핵심 키워드



* 출처: 신동훈, 김세현(2021).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순위	주제어	빈도	TF-IDF	순위	주제어	빈도	TF-IDF
1	지원	4,285	.01037	26	운영	1,294	.013762
2	교육	3,743	.016402	27	증가	1,268	.010335
3	고용	3,672	.017364	28	기관	1,249	.012661
4	사업	3,257	.019474	29	활용	1,246	.00825
5	지역	2,914	.021769	30	효과	1,240	.009422
6	일자리	2,849	.017674	31	세대	1,200	.030709
7	여성	2,667	.04169	32	가능	1,192	.007192
8	취업	2,521	.016612	33	개선	1,170	.010048
9	기업	2,224	.01749	34	가구	1,167	.048037
10	경제	2,085	.008967	35	체계	1,164	.009779
11	노동	2,083	.015025	36	제시	1,160	.007874
12	대학	2,073	.024947	37	과정	1,155	.00909
13	제도	1,708	.012576	38	평가	1,101	.014103
14	직업	1,655	.021445	39	산업	1,095	.01427
15	시장	1,653	.011984	40	확대	1,077	.008478
16	개발	1,623	.012352	41	실업	1,076	.017234
17	참여	1,573	.012136	42	훈련	1,073	.022848
18	창업	1,560	.051374	43	프로그램	1,042	.015817
19	인력	1,497	.016694	44	구조	1,038	.008427
20	대상	1,482	.007294	45	국가	979	.010115
21	서비스	1,442	.018296	46	능력	974	.015201
22	변화	1,422	.010458	47	소득	966	.017355
23	활동	1,404	.012543	48	제공	949	.0094
24	정부	1,358	.008475	49	한국	942	.011429
25	추진	1,329	.009958	50	주택	936	.053794

Ⅲ.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

2. 안전 및 주거 관련 청년정책 추진 방향

➤ 부처간 협업을 통한 정책 효과 극대화

- 사회적 고립 문제를 조기에 해결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체계 마련
- 주거 및 금융리터러시 함양을 통한 장기적 주거 계획 설계 지원
- 성인기 이행의 한 과정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이해하고 정책 설계(일자리,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의 영역과 융합 또는 동반상승을 고려한 정책 추진)
- 유사성격 및 유사대상 사업간 유연한 예산활용

➤ 1-2인 가구의 증가 및 다양한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수행 및 정책 수립

- 가족단위 지원에서 가구단위 지원방식으로 전환
- 청년 1인 가구 간 양극화 양상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

감사합니다